

27일 Market Index	
▲ 코스피	6615.03 (+139.40)
▲ 코스닥	1226.18 (+22.34)
▼ 금리 (미국 3년)	3.492 (-0.004)
▼ 환율 (원/달러)	1471.55 (-12.95)



SSD시장 상승 사이클... 삼성·SK 'AI 특수'

삼성전자, SSD값 10% 이상 인상을 타 공급업체 가격 재조정 가능성 삼성 시장 점유율 33%, SK 30% 고부가 시장 주도권 확보 '호재'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전라 인업에서 가격 강세가 본격화되면서 낸드 플래시 시장이 상승 사이클을 키우고 있다. 이에 글로벌 SSD 시장을 이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생산능력 확대에 속도를 내며 수요 대응에 나서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SSD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00~330달러에 판매되는 삼성 990PRO 1TB(테라바이트) 제품은 최대 360달러까지 상승해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유사한 사양의 제품을 100달러 미만에 구매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가격이 3~4배 급등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SSD 업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번 가격 조정이 타 공급업체들의 가격 재조정 가능성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증권가에서는 낸드 부문 영업이익률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익성을 추월할 수 있다는 의견도 팽배하다.

이같은 가격 인상은 AI인프라 구축 확대에 따른 기업용 SSD 수요 급증과 낸드 플래시 공급 부족 심화가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전반적인 2분기 낸드 플래시 계약 가격이 전 분기 대비 70~75% 상승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이러한 흐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SSD 시장에서 점유율 33.8%, SK하이닉스는 30.2%를 기록하며 고부가 시장 주도권을 확보 중이다.

삼성전자는 수요 확대에 발맞춰 6세대 PCIe가 적용된 기업용 SSD인 'PM1763' 양산을 준비 중이다. PCIe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표준 연결 기술로 세대가 올라갈수록 데이터 전송 속도와 대역폭이 크게 향상된다. AI 서버처럼 대량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해야 하는 환경에서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PM1763은 5세대 대비 성능이 2배, 전력효율은 60% 개선됐다. 최대 64TB 용량 제품도 출시될 계획이다. 이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에 주요 저장장치로 활용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 서울 강서구 화곡4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코스피 6600' 시총 사상 첫 6000조 시대

코스피 이달들어 30.93% 급상승 외국인, 국내주식 3.7조 가량 매수 삼전 1.7조·하이닉스 1.8조 사들여

고공행진하는 코스피가 6600선도 넘어섰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15% 상승한 6615.03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장 중 및 종가 기준 6600선을 넘어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도 사상 첫 60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은 5421조5541억원,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은 각각 679조5452억원, 4조 원이다.

<관련기사 3면> 중동 전쟁의 충격으로 글로벌 주요국 증시 중 가장 강한 하락세를 보였던 코스피는 반등 속도도 가장 가팔랐다. 지

난달 19.1% 하락했던 코스피는 이달 들어 30.93% 올랐다.

미국과 이란이 일시 휴전하며 전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올릴 것이라는 기대와 이를 투자 기회로 노린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월간으로 역대 최대 폭인 35조8806억원어치 국내 주식을 팔아 치웠지만, 이달 들어 3조7000억원 넘게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각각 1조 7025억원, 1조 7814억원씩 사들이며 반도체 종목에 매수세가 집중됐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28%, 5.73% 상승해 22만4500원, 129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SK하

이닉스는 이날도 장중 131만7000원을 터치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증권가는 한국 증시의 장밋빛 미래를 얘기한다. 골드만삭스는 코스피의 향후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7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발표한 투자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호조에 힘입어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올해 이익이 전년 대비 22% 급증할 것"이라며 "반도체 업종의 이익 개선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나머지 시장 역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했다. 또 골드만삭스는 "외국인 수급은 대규모 매도 후 회복되기 시작했다"며 현재 코스피 반도체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은 낮은 편으로 향후 자금 유입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李 '알파고 아버지'와 AI 협력방안 논의

하사비스 딥마인드 대표 만나 구글, 연내 서울 AI 캠퍼스 개소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알파고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하사비스 대표는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 혁신과 책임있는 AI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구글과 구글 딥마인드는

한국과 AI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구글은 올해 안에 서울에 AI 캠퍼스를 개소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집무실에서 하사비스 대표를 접견했다. 하사비스 대표는 구글 딥마인드 창업자로, 2016년 이세돌 9단과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을 총괄한 인물이다. 또 단백질 구조 예측 AI 모델 '알파폴드' 개발 공로로 2024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세

계적 석학이다.

이번 면담은 정부의 글로벌 AI 협력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면담 후 브리핑에서 "글로벌 AI 산업을 주도하는 리더들이 한국을 찾아와 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우리나라는 반도체 경쟁력, 세계적인 제조역량, 안정적인 인프라, 우수한 인재를 두루 갖춘 나라"라고 말했다. **<6면에 계속>**



社告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찾습니다!

- 모집부문
 - ① 신입 취재기자(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② 영상 촬영 및 편집(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모집내용
 - ① 전형방법
 - ▲ 1차: 서류전형
 - ▲ 2차: 취재역량평가(기사 작성·영상제작 및 편집 평가)
 - ▲ 3차: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 ② 모집인원: 00명
 - ③ 응시자격
 -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6년 8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 ② 경력, 성별 및 나이 무관
 - ③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④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 ① 회사입사지원서 1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구인사이트(잡코리아·사람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 ②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간: 2026년 4월 1일(수) ~ 2026년 4월 30일(목)
 - ②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 및 우편 접수(4월 30일 도착분)
 -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옥인동, 메트로빌딩)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 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년 5월 8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취재역량 평가시험
 - ① 일시: 2026년 5월 13(수) 10시 ~ 16시 40분
 - ② 장소: 추후 통지
 - ③ 내용: 공지하는 주제로 취재기사 작성 또는 영상제작물을 제작해 제출
 - 1차 실무면접
 - ①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② 일자: 2026년 5월 14일(목)~15일(금) 중 1일
 - ③ 장소: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 ④ 기타: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2차 최종면접
 - ① 대상: 취재역량평가시험 및 1차 실무면접 합격자 **<2면에 계속>**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 62.2%...3주만에 하락 /사진 뉴스1
▲李,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충격에 "민주주의의 근간 위협...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안돼"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운동 시작...“어렵게 시작된 변화, 압도적으로 완수”
▲김 총리 독립영화 ‘3학년2학기’ 관람...“20대 삶, 깊이 바라봤는지 돌아보게 돼”

▲국민의힘 개혁파 ‘대안과미래’ 내일 회동...지선 앞 현안 논의
▲나경원 “남의 집 전월세 사는데 죄인가”...장특공 축소 비판